

VD
SPECIAL

벤처와 산학협력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원인전략, 원인전략,

산학협력

NHN 과

성균관대, 한글과컴퓨터와 한신대, 티맥스소프트와 국민대. 이들의 공통점은 최근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학협력이란 기업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있어 대학과 제휴·협동·원조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술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업과 대학이 한 배를 타고 원인전략을 펼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연구소 내에 산학협력팀을 운영할 정도로 산학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 노키아나 휴렛팩커드 역시 산학협력의 효과를 심분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그에 비하면 국내 기업의 산학협력 움직임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한 설문조사 결과는 산학협력 참여기업들이 대체로 산학협력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재단이 103개 산학협력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공학교육과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이공계 인력 충원 시 산학협력 과제에 참여해 본 학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무려 89.3%나 됐다.

또한 이공계 출신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67%)'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는 '현장실습 지원강화(49.5%)', '대학생 인턴사원제 활성화(41.7%)' 항목을 월등히 앞지른 것으로,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의 실효성을 인정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산 학 협 력 이 필 요 한 3 가 지 이 유

산학협력에 이미 참여해 본 기업들은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직도 많은 벤처기업이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벤처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에 관한 정보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에게 산학협력이 필요한 이유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 **벤처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능력의 제고가 핵심이나,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대학 내 산업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이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기업과 대학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기술개발과 연구에 힘을 모으는 산학협력은 상생의 또 다른 모델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약한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학협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산학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있다. 이는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유리한 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할 경우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도 누리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향상되어 산학협력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활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Matching Fund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벤처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이다. 올해 421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을 정도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데 발판 역할을 한다.

➡️ **실업을 완화, 기술인력 확보** | 지금까지 대학 졸업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학연계가 미흡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연구전담인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해 왔다. 기업은 산업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특히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현장적합성과 신규인력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시켜줄 '맞춤형 인력' 양성이 시급하며, 이의 해결책 중 하나인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맞춤형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한 중소기업청은 산학협력을 통해 5년간 1만명의 특화된 기술인력을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수연구실 및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해 벤처기업과 교수, 재학생이 1~2년간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기술개발 완료 후 참여 학생들을 해당기업에 취업토록 유도하는 기술인력 연계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산학협력실 운영은 고급기술인력의 산실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그밖에 벤처기업이 대학 교수에게서 기술 및 경영에 대한 전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 **지역경제 발전, 지방벤처의 활성화** | 지방벤처의 경우 지방소재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이 산학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직까지 산학협력이 미흡한 이유는 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하는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 간에 기술정보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지향적·수요자중심의 연구개발과 정확한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산학협력에 대한 벤처기업의 활발한 동참이 선행될 때, 지역대학과 지방벤처기업 간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